

지역 소식통

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안약사회와 협약체결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윤길상)는 지난 8월 12일 부안군약사회(회장 김재성)와 함께 자살예방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군민의 접근성이 높은 부안군약사회 소속 29개소 약국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하고 생명사랑약국을 보급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굴하고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모니터링, 자살예방문구 및 기관안내가 새겨진 약봉투 보급, 지역내에서 연계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생명사랑약국은 복약지도 시우를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생명사랑약봉투 배포를 수행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 협력망 회의 개최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적극적인 취·창업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총 4차례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4일 학교마을체결강사 양성과정 회의를 시작으로 5일 단계급 식전문조리사, 7일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양성과정과 12일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회의를 가졌다.

협력망 회의에는 전문교육기관과 채용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직업교육훈련생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방안과 효율적인 취업 지원 방안 등에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협력망 위원들은 확고한 취업 의지가 있는 교육생들을 선발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생들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기로 약속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동학정신, 신성장동력으로

정읍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전국·세계·미래화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세계·미래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13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되면서 향후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에 대해 종합·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개발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전문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전국·세계·미래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자원의 확보, 문화상품 개발 현장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문화행정국장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역기관의 동학농민혁명정신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에 대한 발표

를 듣고 향후 정읍시의 선양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관광자원 발굴·개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의견으로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세계·미래화를 위한 비전설정 및 방안 마련 ▲동학농민혁명 핵심 유적지의 기념공간 조성사업 ▲2021년 완공 예정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정읍시의 연계 및 활용방안 ▲고부관아 복원 ▲발목정터



정읍시는 13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및 대피(竹山)마을 기념공간 조성 및 공간구성 방안 마련 등에 심도 있는 토의와 합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수정·보완해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된 이후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선양사업과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동학혁명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착수보고

고창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경제 활성화'의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봉희 의원 13개 관내 농업관련 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

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4년 동안 총 70억원(국비 40, 군비 20)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융복합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세부사업으로 ▲차별화 농업 생태계 기반 강화=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브랜드 개발 전략직물 및 차별화 요인 발굴 ▲식품산업 혁신 공유 플랫폼 구축=높고창 공유가공센터 구축과 높고창 스타트업 지원, 농식품 가공

업인 육성 ▲고창군 식품산업 브랜드화=찾아가는 먹거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식초도시 육성 및 발효산업육성 시스템구축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식품산업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산업 통합 포럼이 운영되고, 액션그룹 경영 컨설팅, 액션그룹 커뮤니케이션 센터 운영 등도 추진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선 농업, 농촌, 농산물, 문화 관광 청년 일자리 등 이번 사업이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최종점검

고창군이 지난 12일 도시공간 전문가와 관련 사업부서 관계자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형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 소장(용역수행기관)이 고창

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보고서 최종점검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기본 개념 설명 ▲도시계획 지표 구성(도시계획 부문,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의 진입부, 건축물 내

편의시설 등) ▲각 지표 설명(지표에 대한 상인지역 관점에서의 해설, 필수/권장 기준 지표, 관련법 설명, 알아두면 편리한 Tip 제시, 지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 및 이미지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창군 특화시설로 해수욕장 시설, 경로당, 작은목욕탕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주민 편의 증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진서면은 12일부터 바다환경지킴이가 곰소항을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마동마을까지 호우로 인해 퇴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

부안 진서면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쓰레기 수거

떠밀려온 생활폐기물로 곤혹

부안 진서면은 12일부터 바다환경지킴이가 곰소항을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마동마을까지 호우로 인해 퇴적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중 호우가 끝나자 진서면의 해안가는 떠밀려온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스티로폼, 어망이 쌓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진서면 바다환경지킴이는 휴가철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쾌적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힘쓰고 있다.

이번 호우에 이르러 불어난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해안가에서 이들은 허리 펴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진서면에서 그들의 역할은 더욱이 커져가고 있다.

김문갑 진서면장은 "지역주민의 바다대청소 참여로 휴가철 우리면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기적으로 바다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쌍화차거리' 매력 아시나요

정읍시, 영상콘텐츠 공모전... 내달 29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전국에 쌍화차거리의 매력을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쌍화차거리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정읍쌍화차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유주제의 영상콘텐츠를 공모해 수상작을 쌍화차거리 알리기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정읍 쌍화차 거리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고,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영상은 쌍화차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개인(팀) 당 각 2점씩

공모할 수 있고 영상 분량은 1~3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 5편을 선정하고, 대상에는 상금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입상 5만 원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정읍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며, 향후 정읍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063-539-5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